

2022년
대덕문화원 연간활동집

대덕과 만난 8760시간

 대덕문화원

2022년
대덕문화원 연간활동집

대덕과
만난
8760
시간

 대덕문화원

 대덕문화원

2022년

대덕문화원 연간활동집

대덕과 만난 8760시간



대덕문화원



안녕하세요. 대덕 문화원입니다

차례



제1장 안녕하세요. 대덕문화원입니다 • 06

- * 대덕문화원이 걸어온 길
- * 대덕문화원 조직
- * 운영방향
- * 대덕문화원 연혁

제2장 마을과 사람, 그리고 문화원 • 11

- * 2022년 운영사업 소개

제3장 대덕문화원 직원 인터뷰 • 41

- * 김인숙 * 홍순자 * 노한성 * 장 원
- * 차진주 * 이승준 * 박한결

제4장 한 장의 사진과 수많은 추억 • 71

- * 대덕문화원 활동 사진

제5장 언론이 바라본 대덕문화원 • 83

- * 대덕문화원 언론보도 모음



제1장

안녕하세요. 대덕문화원입니다

대덕문화원 소개



대덕문화원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에 의식주를 비롯해 언어·풍습·종교·학문·예술·제도 따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 범위가 상당히 다보니 문화라는 단어를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화는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난해한 몇몇 단어 중 하나다.”
- 영국의 문화연구자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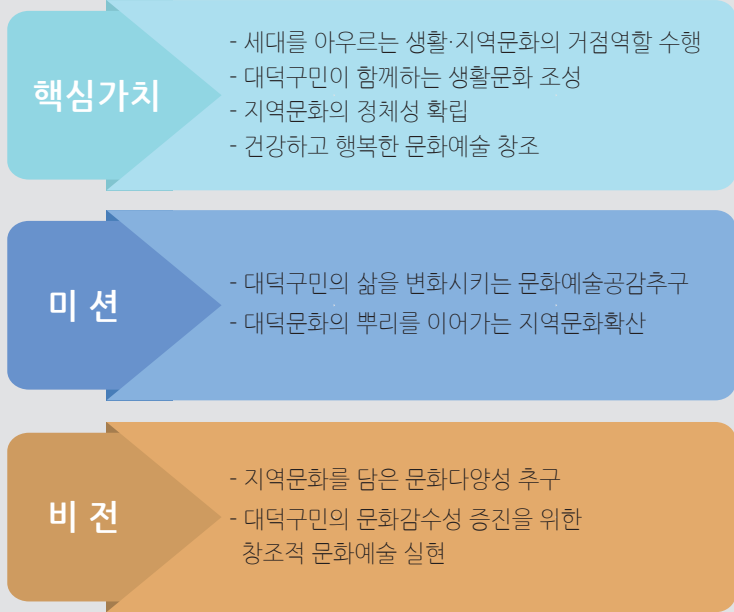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문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문화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는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용도 혹은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역문화, 전통문화, 생활문화, 예술활동 등을 주제로 일 년 365일 가장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최고의 만찬을 차려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지역의 문화발전을 이끌기 위해 존재하는 곳, 바로 대덕문화원입니다.

대덕문화원이 걸어온 길

지난 1994년 12월 22일 문화체육부 설립인가를 받은 대덕문화원은 1995년 2월 17일 법동 안산도서관 내 첫 동지를 틀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0년 12월 30일 현재 대덕문화원이 자리 잡고 있는 대덕구문예회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08년부터 대덕구문예회관의 수탁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대덕구민의 문화수준과 대덕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소외 없는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덕구를 만들어나가고자 설립됐습니다.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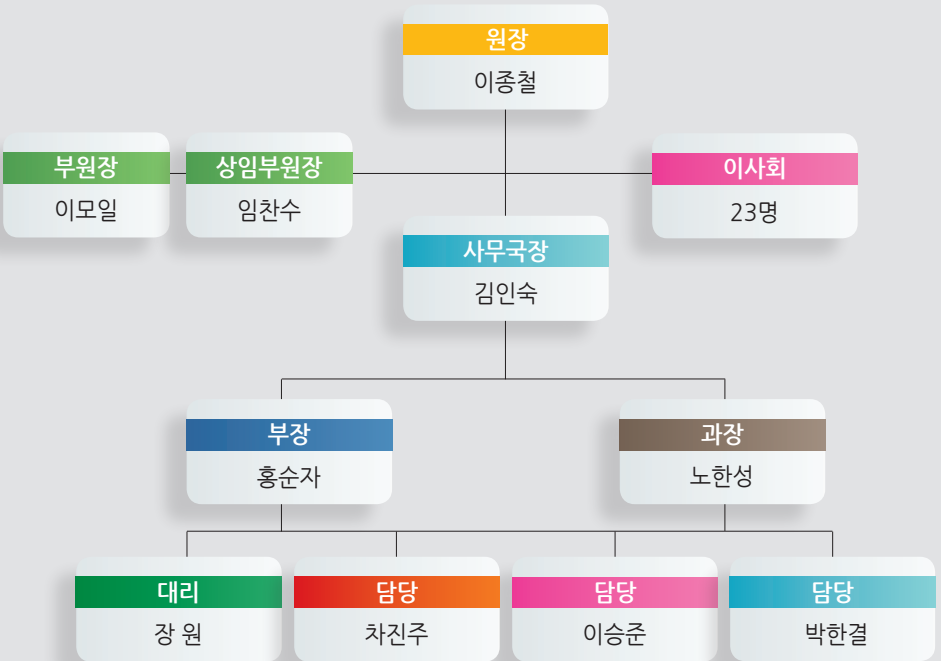


이에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및 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원은 그동안 대덕구민의 특색이 담긴 문화 콘텐츠를 조사·발굴해왔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해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대덕문화원이 대덕 문화의 뿌리이자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들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덕문화원 조직

역대 원장으로는 류해상 초대원장(초대~2대, 4대), 신현배 원장(3대), 송성현 원장(5대~7대), 이종철 원장(8대~현재)이 문화원 수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2년 현재 대덕문화원 임원은 원장 1명, 상임부원장 1명, 이사회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을 비롯해 총 7명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대덕문화원 연혁

2022

1. 1 대덕문화예회관 수탁기관 선정

2021

12. 17 대덕문화원 - 한남대학교 업무협약

2020

10. 2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상 수상

2. 21 2021년도 정기총회

2019

2. 14 제9대 원장 이종철 취임·2019년도 정기총회

1. 1 대덕문화예회관 수탁기관 선정

2018

10. 14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계족산무제'동상 수상

2. 22 2018년도 정기총회

2017

3. 15 제8대 원장 이종철 취임

2. 2 2017년도 정기총회

2016

12. 21 화관문화훈장 수여(원장 송성현)

2. 17 2016년도 정기총회

2015

2. 26 2015년도 정기총회

2. 17 제7대 원장 송성현 연임

2014

2. 20 2014년도 정기총회

2013

2. 28 2013년도 정기총회

2012

2. 28 2012년도 정기총회

2011

10. 11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원 대상 수상

2. 17 제6대 원장 송성현 연임

2. 16 2011년도 정기총회

2010

2.25 2010년도 정기총회

2009

2. 20 2009년도 정기총회

2008

10. 24 회덕작은도서관 개관 및 운영

1. 22 2008년도 정기총회

1. 1 대덕구 문화예회관 수탁기관 선정

2007

2. 27 제5대 원장 송성현 취임

2. 19 2007년도 정기총회

2006

2. 24 2006년도 정기총회

2005

2. 22 제4대 원장 류해상 취임

1. 27 2005년도 정기총회

2004

2. 19 2004년도 정기총회

2003

2. 17 제3대 원장 신현배 취임

1. 17 2003년도 정기총회

2002

2. 26 2002년도 정기총회

2001

11. 9 전국문화원 관리운영평가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2. 16 2001년도 정기총회

2000

12. 27 문화원 표석제막식·문화원사 이전

7. 10 중국해림시 서법전각협회와 문화결연

2. 16 2000년도 정기총회

1999

12. 27 대덕시낭송회 창립

1. 29 1999년도 정기총회·제2대 원장 류해상 취임

1998

3. 19 대덕사진동호인회 창립

3. 6 한국문화학교 지정(문화관광부)

2. 28 1998년도 정기총회

1997

8. 22 대덕미술작가회 창립

1. 28 1997년도 정기총회

1996

10. 19 제37회 전국민속경연대회

3. 27 대덕문화회 창립

2. 28 1996년도 정기총회

1995

2. 17 문화원 현판제막식

문화원 개원식 및 초대 원장 류해상 취임

1. 5 대덕문화원 설립등기(대전지방법원)

1994

12. 22 문화체육부 설립인가 9. 14 대덕문화원 창립총회 개최

7. 11 제2차 발기인총회 개최 7. 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공포

7. 1 제1차 발기인총회 개최 5. 2 설립을 위한 발기인 선정

4. 13 대덕문화원 설립방침 결정 1. 7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공포



제2장

마을과 사람, 그리고 문화원

2022년 운영사업 소개

2022 문화원 방문기념 문화상품 제작

방문기념 우산 제작

- * 제작기간 : 2월
- * 제작상품 : 우산 400개 / 장우산(2종) 200개, 3단우산 200개
- * 내 용 : 대덕문화원을 홍보하는 문화상품을 제작하여 방문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대덕문화와 대덕구 내 문화행사를 홍보하였다.
- * 사업 담당자 : 차진주
- * 담당자 노트 : 내년에는 더욱 간직하고 싶은 기념품으로 준비할게요. 기대하세요~!



전통민속놀이한마당 정월대보름 축제

소망을 담다

- * 배부기간 : 2월 ~ 3월
- * 장 소 : 대덕문화원
- * 참여자 : 대덕구민 및 대덕문화원 회원 77명
- * 내 용 : 대보름을 맞아 자개달 그림톡과 한해의 소망을 염원하는 글귀를 캘리그래피로 담아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올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진행했다.
- * 사업 담당자 : 이승준
- * 담당자 노트 : 10월 중순에 우연히 대덕구에 한 가게에 들어갔다가 정월대보름행사에 나눠 드린 가훈 액자가 한곳에 놓여 있어 행복감과 원지 모를 뿌듯함이 감돌았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두가 가훈에 담긴 내용처럼 소망이 이루어졌길 바란다.





202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용호일기



- * 기 간 : 2022. 3. 8.(화) ~ 9. 15.(목)
- * 장 소 : 용호동 마을회관
- * 주강사 : 김나무(김유신), 김병호
- * 참여자 : 용호동 마을주민 / 13명
(김귀연 김길순 김복래 김정열 김정자 김태연 김현자 박희서 방순이 서유진 이용희 차현자 황은실)
- * 내 용 : 마을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일상문화를 소재로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하는 용호동만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구분	운영회차	운영일시	장소	참여인원	주요내용
교육	19회차	4.7.(목)~8.18.(목) 매주 목요일 14:00~16:00	용호동 마을회관	13명	영상 제작을 위한 스토리 구성, 영상 촬영, 편집, 효과 넣기
영상시사회	1회차	9.15.(목) 19:00~20:00	용호동 마을회관 앞	70여명	주민제작영상 및 교육활동영상 상영, 결과자료집 배부

- * 사업 담당자 : 차진주
- * 담당자 노트 :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려달라던 주민분들이 몇 달 만에 마을 뉴스 정도는 똑딱 편집해 올리신다. 유튜브 '용호마을TV'를 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웃음이 터지곤 한다.



2022 문화원 직원 역량 강화

울산남구문화원, 부산 문화예술공간 견학

- * 기 간 : 2022. 4. 21.(목) ~ 12. 28.(수)
- * 장 소 : 울산남구문화원, 부산 문화예술공간
- * 참여자 : 문화원 임직원 9명
(이중철, 임찬수, 김인숙, 홍순자, 노한성, 장원, 차진주, 이승준, 박한결)
- * 내 용 : 우수문화원 및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견학을 통해 문화원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과 차년도 운영사업 및 문화원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참여인원	주요 방문지
1차	4.21.(목)~4.22.(금) 울산남구문화원 외	직원 7명	울산남구문화원, 장생포 문화예술촌 (꾸러기놀이터, 장생포아트스테이,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 문화마당 새미골)
2차	12.26.(월)~12.28.(수) 부산 F1963 외	임직원 9명	복합문화공간 F1963, 더소가카페 달맞이점 등

- * 사업 담당자 : 차진주
- * 담당자 노트 : 시원한 봄비를 맞으며 울산 남구의 좁은 골목을 누볐던 추억과 부산 해운대에서 함께 보낸 따뜻한 연말의 기억이 오래도록 남는다.





제27회 온라인 대덕백일장

- * 기 간 : 4월 ~ 6월
- * 심사위원 : 김홍진, 박은선, 김태인
- * 참여자 : 1,303명
- * 글 제 : 신호등, 라면, 꽃다발
- * 내 용 : 올바른 글쓰기 문화를 확립 시키고자 대덕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학생들은 학교로 상장을 통해 입상자들의 글쓰기를 고취시키고 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문학적 재능과 소질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자 진행됐다.

구분	초등(저)	초등(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계
운문	146	273	231	117	168	935
산문	20	58	46	136	108	368
계	166	331	277	253	276	1,303

- * 사업 담당자 : 이승준
- * 담당자 노트 : 신호등, 라면, 꽃다발.., 사소한 일상에 흔히 쓰는 말로 잠시나마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 * 기 간 : 5월 ~ 12월
- * 장 소 : 대덕문화원 공연장 · 앞마당
- * 상주단체 :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유성재즈악단
- 교류공연단체 : 극단 떼아뜨르 고도, 뽀스
- * 내 용 :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연장을 활성화하고, 공연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마임, 연극, 재즈, 무용 등 총 6회의 공연을 진행했다.



회차	일시	공연명	단체명	장소
1	5. 27.(금) 11:00	클라운 마임콘서트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앞마당
2	6. 17.(금) 11:00, 15:00	연덕을 넘어서 가자	극단 떼아뜨르 고도	공연장
3	6. 24.(금) 19:30	JAZZICAL	유성재즈악단	공연장
4	8. 5.(금) 19:30	섬머췌즈특집	유성재즈악단	앞마당
5	10. 8.(토) 17:00	국악이 춤추다	뽀스	공연장
6	11. 25.(금) 19:30, 11. 26.(토) 15:00	간 빼먹는 자들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공연장

- * 사업 담당자 : 박한결
- * 담당자 노트 : 쉽고 대중적인 무대부터 심오하고 예술적인무대까지 다양한 공연을 열어 코로나19로인해 조심스러웠던 문화원 활동이 다시 활짝 펼쳐짐을 알렸다.





2022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대덕과 사람, 그 자취의 기록



- * 기 간 : 5월 ~ 12월
- * 내 용 :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변화를 겪게 된 대덕구 지역 수물민 24명의 이야기를 구술 채록하고자 8명의 기록가를 양성한 후 영상으로 기록하여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에 아카이브 하고 이를 활용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 세부일정

구분	총 회차	기간 및 일시	장소
기록가 양성(통합교육)	9회	5월 ~ 8월	한국문화원연합회
기록가 양성(자체교육)	4회	6월 중	대덕문화원
참여자 정기회의	5회	5월 ~ 10월	대덕문화원
구술채록 활동	72회(1인 3 회)	6월 ~ 10월	대덕구 내
특별전시회	-	22. 12. 16.(금) ~ 23. 3. 31.(금)	대덕문화원 2층

- * 참여자 :
 - 생활사 기록가 : 김예은, 유미애, 이은하, 임병희, 임지선, 정명자, 최지원, 한소민
 - 지역전문가 : (구술) 김정숙, (향토사) 안여중
 - 구술자 : 강한규, 강희범, 강희풍, 고대열, 고동대, 고정선, 노재순, 노재순, 민경석, 민정기, 변기관, 변덕근, 변득수, 변백수, 변병익, 변영찬, 성서경, 연구식, 연사흠, 이상만, 이상천, 이세형, 이용우, 차선준
 - 특별전시 기획자 : 박정언
- * 사업 담당자 : 장원
- * 담당자 노트 :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문화원에서도 처음 진행해본 사업이라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문화원 외 · 내부 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사업이었다. 특별전시회에 오셨던 구술자 24명이 대덕문화원 직원들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전통민속놀이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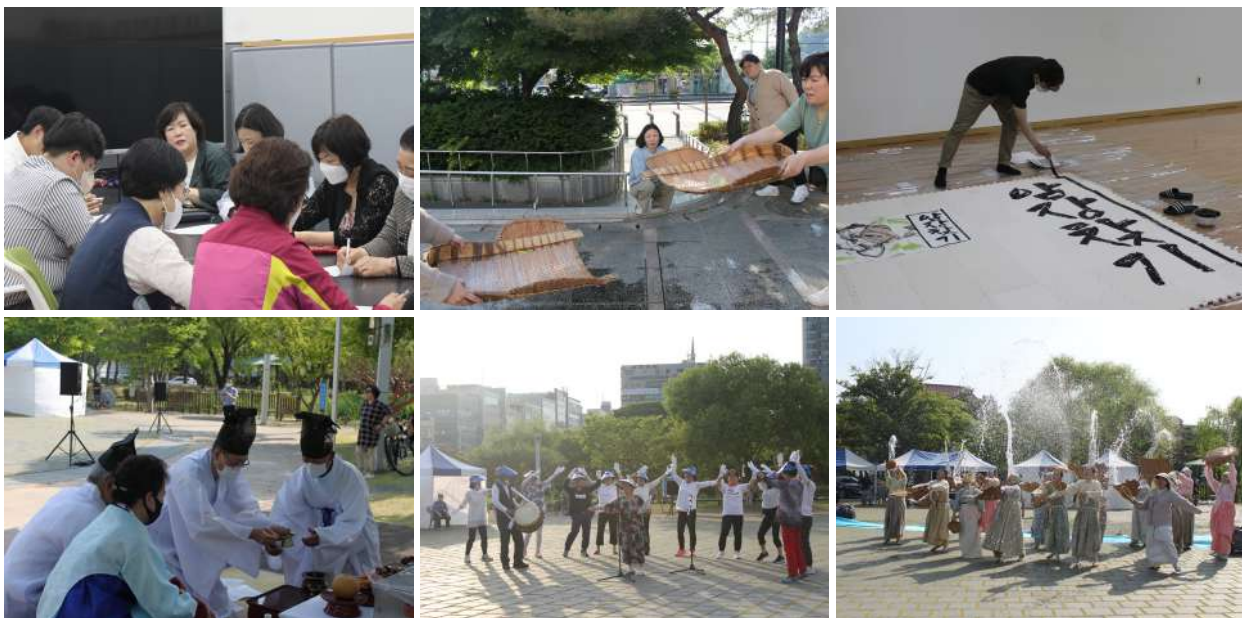
계족산 무제 <단비 운동회>



- * 일 시 : 2022. 6. 3.(금) 16:00 ~ 19:00
- * 장 소 : 동춘당 역사공원 일원
- * 참여자 : 마당극패 우금치, 대덕구풍물단(8팀), 대덕향토문화연구회, 대덕구민 / 150여명
- * 진행순서 : 시연마당 → 기원마당 → 단합마당

구분	시간	내용
시연마당	16:00~16:25	계족산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회덕현 마을사람들이 가뭄이 들어 비를 기원하는 계족산무제 이야기를 마당극으로 시연
기원마당	16:25~16:35	지역의 무사태평과 안녕을 기원하며 비를 기원하는 기원고사 진행
단합마당	16:35~17:00	계족산 무제 장면적 요소 및 소품을 활용한 단합운동회 개최(7종목)

- * 사업 담당자 : 이승준
- * 담당자 노트 : 더운 날씨에도 비를 내리게끔 기우제와 운동회로 신명나게 난장을 부린 덕분에 다음날 비가 오는 신비한 일어났다.(대박)





2022 대덕문화가족 전국역사문화탐방

논산, 단양 역사문화탐방

- * 기 간 : 2022. 6. 9.(목) ~ 10. 27.(목)
- * 장 소 : 충남 논산시, 충북 단양군
- * 참여자 : 대덕문화원 임원 및 회원 70여명
- * 내 용 : 문화원 회원들이 타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하면서 대덕문화에 관심을 갖고 회원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참여인원	주요 방문지
1차	6.9.(목) 09:00~16:00 충남 논산 일원	임원 18명	돈암서원, 탑정호출렁다리, 명재고택
2차	10.27.(목) 08:30~18:30 충북 단양 일원	임원 및 회원 70명	단양 잔도길, 만천하스카이워크, 온달관광지

- * 사업 담당자 : 차진주
- * 담당자 노트 : 무더운 여름 방문한 돈암서원. 응도당 마루에 걸터앉아 땀을 식혔던 논산의 추억. 만천하스카이워크 정상에 올라 바라본 단양 시내의 멋진 가을 풍경도 함께 했기에 더욱 즐거웠다.



2022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새로운 나를 꿈꿔보는 사람들, 꿈꾸미



- * 기 간 : 2022. 6. 28.(화) ~ 9. 6.(화)
- * 장 소 : 대덕문예회관 2층 공경실, 3층 소전시실
- * 주강사 : 이태연, 허주연
- * 참여자 : 한남대학교 대학생 및 대덕구민 / 23명
(강미현 김경 김복식 김엘림 김정희A 김정희B 김현희 박수빈 박순희 박용준 박태임 배재영 백옥현 서수진 손현서 송석화 신혜영 양미애 유예지 유재성 이예연 정진우 정채운)
- * 내 용 : 부캐릭터를 창작하는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며 예술 활동을 스스로 지속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구분	운영회차	운영일시	장소	참여인원	주요내용
교육	15회차 (1기)	6.28.(화)~8.16.(화) 매주 화, 수 13:30~15:30	2층 공경실	13명	미술(나만의 부캐릭터 창작하기)
	15회차 (2기)	6.28.(화)~8.16.(화) 매주 화, 수 15:40~17:40	"	10명	"
전시	1회차	8.30.(화)~9.6.(화) 10:00~17:00	3층 소전시실	50여명	작품 전시, 교육활동영상 상영

- * 사업 담당자 : 차진주
- * 담당자 노트 : 부캐릭터를 통해 세계를 여행하고 무대에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꿈꾸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대전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해피클래식

- * 일 시 : 2022. 6. 28.(화), 10.25.(화) 11:00
- * 장 소 : 대덕문화회관 2층 공연장
- * 공연자 : 대전시립교향악단
- * 관람객 : 관내 어린이집, 회덕초등학교, 대덕구민 / 223명
- * 내 용 : 대전시립교향악단에 고품격 연주 및 설명을 통해 처음 접하는 클래식 입문자와 문화공연에 관심있는 관객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 사업 담당자 : 이승준
- * 담당자 노트 : 우리동네 해피클래식! 40분의 클래식 연주로 관객들의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히 채워져 다음에도 더욱 많은 분들이 친구 또는 애인과 함께 대덕문화원에 오셔서 문화예술을 즐겼으면 좋겠다.



민속보존마을행사

장승제, 산신제, 보름제

- * 일시 또는 기간 : 6월 ~ 11월
- * 참여자 : 각 마을별 추진위원회 및 마을주민
- * 내 용 :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제를 진행하여 민속전통신앙문화를 보존 및 계승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고자 진행했다.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1	장동 장승제	6. 5.(일) 18:00	장동 진골 산고개 석장승	
1	읍내동 뒷골 산신제	10. 24.(월) 19:00	읍내동 뒷골 산제당	
2	장동 산디마을 산신제	10. 27.(목) 19:00	산디마을 뒤편 계족산 산제당	
3	연축동 연축골 산신제	11. 7.(월) 02:00	연축동 연축골 계족산 산제당	

- * 사업 담당자 : 이승준
- * 담당자 노트 : 마을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을제를 지키고 계신 마을 특공대(마을 추진원회)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을제를 보존하여 민속신앙문화 및 마을 문화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대덕문스팟 달빛부르쓰

- * 기 간 : 2022. 7. 8.(금) ~ 9. 2.(금)
- * 장 소 : 대덕문화원 공연장
- * 공연단체 : 공간 구석으로부터, 나무시어터 사회적협동조합
- * 관람인원 : 총 454명 / 1회차(154명), 2회차(160명), 3회차(140명)
- * 내 용 : 지역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전 영화와 그림 상영을 배경으로 연극배우의 목소리 연기와 라이브 연주가 함께하는 콜라보 공연을 기획하여 라이브더빙 번사극, 입체낭독극 등 색다른 장르의 공연을 개최했다.



회차	일시	관람인원	내용
1	7. 8.(금) 20:00~21:00	154	라이브더빙 번사극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2	7. 29.(금) 20:00~21:00	160	라이브더빙 번사극 '언니는 말괄량이'
3	9. 2.(금) 20:00~21:00	140	입체낭독극 '컬러_빛깔이 있는 것'

- * 사업 담당자 : 박한결
- * 담당자 노트 : 어르신들에게는 향수를, 청년들에게는 신선함을 주었던 달빛부르쓰.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로 따듯함을 선사했다.



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일상-잇다

- * 기 간 : 2022. 7월 ~ 12월
- * 장 소 : 대덕문화원, 소대현고택, 회덕향교, 오정다움, 하늘강아들리에, 캠프로젝트 등
- * 협 력 : 나무시어터 사회적협동조합, 공간 구석으로부터, 마을기록연구소 그리고
- * 사업기획단 : 김민숙, 차진주, 남명옥, 서은덕, 최지원, 정명자, 김미경, 김보람, 이보현
- * 강 사 : 남명옥(주), 김미경(주), 김보람(보조), 정명자(특강), 김인경(특강), 임다은(특강)
- * 전문가 : 임덕순(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백현주(교육기획연구자)
- * 참여자 : 대덕구 주민자치회(회덕동, 중리동, 오정동, 법2동), 대덕구민 / 12명
(곽진배 김현희 박기봉 송 혁 신미선 이명숙 이미선 이현소 장남희 제춘기 조영숙 최미나)
- * 내 용 : 대덕구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에 대한 정량적 현황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문화예술교육 단체들과 지역주민을 매칭하여 연구조사과정이 곧 문화예술교육이 되도록 함. 조사과정에서 예술인과 주민의 경계에 선 주민을 발굴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성을 위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했다.



구분	운영기간	장소	참여인원	주요내용
협의체운영	7월~12월	대덕문화원 외	17명	민·관 협의체 구성
자원조사분석	8월~10월	-	3명	대덕구 문화예술교육 자원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참여형 조사실험 <이야기 덕덕꾼>	9.14.~11.1.	대덕구 문화공간	12명	교육프로그램 운영(12회차) (현장답사 2회, 특강 3회) 덕덕꾼 이야기책 만들기
결과공유회 <방방마다 이야기>	11.12.(토) 14:00~17:00	대덕문화원 곳곳	60여명	덕덕꾼 이야기책 낭독극 조별 이야기 워크숍 강강술래&단심줄놀이

- * 사업 담당자 : 차진주
- * 담당자 노트 : '이야기 덕덕꾼'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이야기가 이야기책, 낭독극 같은 예술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시간이었다.





제3회 대한민국 김호연재 여성회화대회

- * 기 간 : 7월 ~ 9월
- * 장 소 : 대덕문화원
- * 운영위원 : 명진 홍정임, 대산 유정인, 몽화 양영, 청봉 유기원
- * 심사위원 : 잣솔 장혜자, 노정 구경희, 남리 최영조, 우전 성인근
- * 참여자 : 총 109명 / 130점



구분	대전	전남·전북	세종·충남·충북	서울·경기·강원	대구·경남	계
인원(명)	43	5	24	30	7	109
출품수(점)	55	6	27	34	8	130

- * 내 용 : 회화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에 있는 여성 서화인들에게 김호연재의 문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점진적으로 초대작가를 양성하여 김호연재 및 다양한 문화행사에 활동하여 서화인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구분	일정	장소
신청기간	5. 2.(월) ~ 7. 14.(목)	대덕문화원 홈페이지
현장취호	7. 16.(토), 10:00 ~ 17:00	대덕문화원
시 상 식	8. 27.(토) 14:00	대덕문화원 3층 대전시실
전 시 회	8. 27.(토) ~ 9. 2.(금)	대덕문화원 3층 대전시실

- * 사업 담당자 : 이승준
- * 담당자 노트 : 나도 서예를 배운 사람으로써... 참가들이 대회를 나오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하는지 알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가셨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대전시립무용단 공연

찾아가는 공연 전통춤



- * 일 시 : 2022. 8. 23.(화) 11:00
- * 장 소 : 대덕문화회관 2층 공연장
- * 강사 및 참여자 : 대덕구민 및 대덕문화원 회원 80명
- * 내 용 : 대전시립무용단의 찾아가는 공연으로 지역의 춤 문화를 전파 시키고 전통 춤의흥과 멋을 알리고 지역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진행했다.
- * 사업 담당자 : 이승준
- * 담당자 노트 : 절도 있는 동작과 예사롭지 않은 춤선을 선보인 무용단 공연으로 문화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2022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 * 기 간 : 2022. 9. 16.(금) ~ 9. 18.(일)
- * 장 소 : 대청공원
- * 내 용 : 아름다운 생태관광지인 대청호에서 자연, 사람, 음악이 함께하는 치유와 힐링의 축제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일시	장소	주요내용
아외뮤직페스티벌	9.17(토)~18(일) 14:00~21:00	동편광장	음악성, 대중성 겸비한 뮤지션 15개팀 공연 (옥상달빛, 거미, 데이브레이크 등)
전국청소년가요제	11:00~13:30	"	MBC 4U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특별편성
뮤직토크콘서트	9.18.(일) 12:00~13:00	"	가을감성의 대중가요 토크%라이크 공연
생태음악캠핑	9.16(금) 16:00~22:00	서편광장	해피로드 줍깅, 친환경 소품 만들기 체험, 음악공연 등
체험·판매프로그램	9.17(토)~18(일) 11:00~19:00	중앙광장	프리마켓(10개), 먹거리마켓 문화체험부스(18개) 운영

- * 사업 담당자 : 차진주
- * 담당자 노트 : 가을밤 선선한 바람 부는 대청호에서 열리는 힐링음악 축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겨요♪



제22회 대덕시낭송대회

김호연재 시로 만나다



- * 일 시 : 2022. 11. 18.(금) 19:00
- * 장 소 : 대덕문예회관 2층 공연장
- * 심사위원 : 이규식, 박대순, 노수승
- * 예 선 : 일반부 ; 15명 / 초등부 : 12명
- * 본 선 : 일반부 : 10명 / 초등부 : 10명
- * 내 용 : 대덕구 지역의 초등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진행하여 시낭송에 대한 흥미 및 관심을 확대하고 정서와 언어순화에 도움을 주고 시낭송대회의 저변확대 및 문학인재를 발굴하고자 진행됐다.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신청기간	9. 19.(월) ~ 10. 21.(금)	대덕문화원 홈페이지	
예선	10. 21.(금), 19:30~20:30	하와카페	
본선	11. 18.(금) 19:00~21:00	대덕문예회관 2층 공연장	10.29.참사로 날짜 변경

- * 사업 담당자 : 이승준
- * 담당자 노트 : 발랄하면서 고운 초등부 시낭송과 자연스럽고 내공 깊은 일반부 시낭송이 무르익은 가을을 운치 있게 해줬다. 대덕구민들이 시낭송의 매력에 빠지셨으면 좋겠다.



제25회 동춘당 문화제

우리, 지금, 여기



- * 일 시 : 2022. 9. 24.(토) 10:00~21:00
- * 장 소 : 동춘당 역사공원 일원
- * 내 용 : 대덕구의 대표적 역사인물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조명하고 그의 삶에 나타난 시대정신을 대덕구민들과 공유하고자 진행한 역사문화제로써 역사적 의미를 담아낸 전통문화체험부터 역사를 고증한 프로그램까지 운영하여 대덕구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하였다.
- * 프로그램 : 송모제례, 동춘장터, 휘호대회, 문정공시호봉송행렬, 히스토리텔링 마당극
- * 관람객 : 약 3,000여 명
- * 사업 담당자 : 장원
- * 담당자 노트 :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동춘당 문화제! 오랜만에 동춘당 역사공원에 모여 공연도 보고 음식도 먹고 게임도 해보고. 와중에 송춘동 일대를 지나 공원으로 들어오는 문정공시호봉송행렬 모습에 눈물이 절끔.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는걸 느꼈던 사업이었다.

지역문화재 스토리텔링

술시에 떠나는 개비 야행



- * 일 시 : 2022. 9. 28.(수) ~ 9. 29.(목) 19:00~21:30
- * 장 소 : 대덕구 읍내동 소재 문화재 3곳
- 어사홍원모 영세불망비 및 비각, 회덕현감 공덕비, 회덕향교
- * 강 사 : 김은정(해설), 정재일(진행 및 레크레이션), 진은경(전각), 허윤기(스냅 촬영)
- * 참여인원 : 총 30명 / 각 15명, 총 2회
- * 내 용 : 지역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 해설과 체험 활동을 함께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즐겁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야행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헤드폰에서 해설사의 음성이 나오는 흥미진진한 문화재 해설과 종이탈 꾸미기, 문구 퍼즐 맞추기, 전각, 놀개비(레크레이션), 먹개비(다과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으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소소한 재미를 느낀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 * 사업 담당자 : 박한결
- * 담당자 노트 : 도개비 탈을 쓴 채 청사초롱 들고 떠난 야행길은 웃음으로 가득했고 문화원직원들의 얼굴은 땀으로 가득했다...



대전지역 전통민속놀이 대축제

목상동 들말두레 소리

- * 일 시 : 2022. 10. 9.(일) 13:50
- * 연습기간 : 2022. 10. 6.(화) ~ 8.(토)
- * 장 소 :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 * 참여자 : 목상동 들말두레소리 보존회 및 목상동 주민 / 60여명
- * 보유자 : 문병주 / 이수자 : 김기옥
- * 내 용 : 들말두레소리 시연을 통해 대전 시민들에게 전통민속놀이에 대해 각인시키고 전통문화예술 함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진행됐다,
- * 사업 담당자 : 이승준
- * 담당자 노트 :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들말두레소리 시연을 시작으로 대전 전 지역으로 널리 퍼져 들말두레소리가 한국의 소리로 되는 그날까지 시연은 계속~~



전통민속놀이육성

목상동 들말두레소리

- * 일 시 : 2022. 10. 16.(일) 14:00~15:00
- * 연습기간 : 2022. 10. 12.(수) 15.(토)
- * 장 소 : 들말두레소리 전수회관 일원(대덕구 을미기 공원)
- * 참여자 : 목상동 들말두레소리 보존회 및 목상동 주민 / 60여명
- * 보유자 : 문병주 / 이수자 : 김기옥
- * 내 용 : 지역의 향토색을 지닌 목상동 들말두레소리를 시연하여 지역의 민속문화를 전승해 나가며 전통민속놀이를 활성화 시키고자 진행됐다.
- * 구성내용 : 토산다지기 → 토산제 → 샘고사 → 모찌기 → 모심기 → 아시매기 → 이듬매기
- * 사업 담당자 : 이승준
- * 담당자 노트 : 관객중에 1996년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을 때 내가 나갔어라고 했던 분이 오셨는데 들말두레소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다. 앞으로도 들말두레소리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대덕학 시즌2

대덕마을 두박두박

- * 기 간 : 10월 ~ 11월
- * 내 용 : 대전의 뿌리이자 역사문화자원이 가장 많이 분포된 대덕구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대덕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대덕구민들에게 알리고자 전문가들과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새로운 대덕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으며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 * 라운드 테이블 : 김지영, 백남우, 서은덕, 이용원
- * 세부일정 :



순번	일시 및 장소	내용	해설
1	11. 11.(금) 14:00 / 읍내동 일원	회덕현 옛 지도를 따라 만나본 회덕 이야기	백남우
2	11. 18.(금) 14:00 / 대청댐 일원	대청호와 수몰이야기	안여중
3	11. 25.(금) 14:00 / 장동 일원	계족산 기슭에 숨어있는 장동 이야기	이용원

- * 참여자 : 총 57명
- * 아카이브 홈페이지 자료 구축 : 2021년 대덕도시역사문화 수집자료 업로드
- * 사업 담당자 : 장원
- * 담당자 노트 : 대덕구 마을 곳곳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들이 쏙쏙 숨어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세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대덕구 지역 전체로 대상 범위를 넓혀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 장동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을 줄이야...



대덕 도시문화기록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제작

- * 기 간 : 10월 ~ 12월
- * 내 용 : 대덕구 내 산재된 역사문화자원들을 종합적으로 조사·수집하고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기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한한 확산을 통한 새로운 지역 문화콘텐츠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기록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 자문위원회 위촉 : 2022. 12. 7.(수) 14:00 / 대덕구 청년병커
- * 자문위원회 명단 : 강성봉, 권선영, 김정숙, 박정언, 변상형, 안여중, 한상헌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daedeokarchive.co.kr/>
- * 홈페이지 내용 : 2021년 기록사업(신탄진 시범화사업), 2022년 대청호 수몰민 구술채록
- * 사업 담당자 : 장원
- * 담당자 노트 : 2021년부터 시작된 대덕 도시문화기록 사업은 대덕문화원으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과장하여 얘기하면 문화원의 생존문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전에 기록사업은 현 시점에서 분명 우리 대덕구에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공연기획)

청춘국악시리즈 판&판

- * 기 간 : 2022. 10. 5.(수) ~ 11. 11.(금)
- * 장 소 : 대덕문화원 공연장·앞마당
- * 공연단체 : 경지, 타고, 토리스, 프로젝트 앙상블 런, 신민속악회 바디
- * 내 용 : 청년 국악인들의 시리즈 공연을 구성하여 실내 공연장을 활용한 무게감 있는 전통국악 공연과 앞마당을 활용한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섯 번의 국악판을 벌였다.



회차	일시	관람인원	단체명	장소
1	10. 5.(수) 19:30 ~ 20:30	89명	경지	앞마당
2	10. 6.(목) 19:30 ~ 20:30	105명	타고	앞마당
3	10. 7.(금) 19:30 ~ 20:30	94명	토리스	앞마당
4	11. 10.(목) 19:30 ~ 20:30	86명	프로젝트 앙상블 런	공연장
5	11. 11.(금) 19:30 ~ 20:30	81명	신민속악회 바디	공연장

- * 사업 담당자 : 박한결
- * 담당자 노트 : 패기 넘치는 청년 국악인들의 명품공연이 연일 이어졌다. 버스를 빌려 공연마다 문화원 관객들을 데리고 다니고 싶었던 공연팀의 소감처럼 뜨거운 환호가 터졌던 판&판.



2022 문화학교 & 작품발표회

대덕문화원 문화학교, 작품발표회 반가움

- * 기 간 : 1월 ~ 12월
- * 장 소 : 대덕문화원 강의실 4곳, 2층 공연장, 3층 대소전시실
- * 지도강사 : 고선에 구경희 길미경 김소원 김영미 김윤식 김효숙 류춘오 방진선 백혜옥 서성관 안도경 안현선 우영경 이규선 임영희 임홍자 장옥분 정규용 정인혜 채승민 한연호
- * 참여자 : 문화학교 수강생 / 1,850여명
- * 내 용 : 문화강좌 운영을 통해 지역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학습하며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작품발표회를 통해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문화예술로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구분	운영일시	참여인원	주요내용
문화강좌	1월~12월	지도강사 22명 수강생 1,850여명	27개 강좌 운영 (어우렁더우렁장구 외)
작품발표회	11.9.(수) 14:00~16:30 ※전시:11.9.(수)~11.14.(월)	지도강사 15명 수강생 120명	공연 9팀, 전시 8팀 체험 1팀 운영

- * 사업 담당자 : 차진주
- * 담당자 노트 :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작품발표회에서 한 자리에 모인 강사님들과 수강생들을 보니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대덕문화회 운영



- * 일 시 : 2022. 11. 24.(목) 19:00
- * 장 소 : 대덕문화원 2층 공경실
- * 시·시조 : 강옥희, 강충구, 김미경, 김범순, 김병섭, 김영규, 김용호, 김지원, 노현석, 박강정, 박대순, 박순애, 박영호, 박종분, 박태임, 백미영, 서정미, 송운영, 오소림, 왕능운, 유태영, 이계창, 이비단모래, 이주영, 장근수, 장덕천, 정임순, 조혜식, 최한구, 한정민, 홍명희
- * 수 필 : 강충구, 김명자, 김영희, 김정자, 노태조, 박영애, 송진팔, 오영조, 왕능운, 홍경석, 홍명희
- * 소 설 : 김용재, 오소림
- * 평 론 : 신상구
- * 내 용 : 대덕문학집 출판기념회와 대덕문학상 시상을 통해 문학활동의 동기부여 및 사기증진과 지역민들이 문학적 소통과 공유를 할 수 있는 매개체역할을 하고자 진행됐다.
- * 사업 담당자 : 이승준
- * 담당자 노트 : 책 읽기 좋은 계절, 대덕문화회와 함께 독서를 취미로 가져 보세요!
(날씨 좋은 날 독서 한 잔 어때요?)



방방곡곡 문화공감(전시기획)

대청어람(大清御覽)



- * 전시기간 : 2022. 12. 2.(금) ~ 12. 29.(목)
- * 장 소 : 대덕문화원 대·소전시실
- * 작 가 : (작가) 노동식, 박정용, 임수빈, 정용민, 정지홍, 조동진, 최정훈, 한수희
(기획) 안현준 | (평론) 허나영
- * 내 용 : '내륙의 다도해, 아름다운 대청호'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 <대청어람>은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 공모사업이다. 두 번의 워크숍을 거쳐 8명의 작가가 저마다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청호를 주제로 서양화, 한국화, 디지털 페인팅, 설치작업 등 22개의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 * 사업 담당자 : 박한결
- * 담당자 노트 : 작가 8명이 저마다 표현한 대청호. 그럼에도 작품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합을 보여주어 감탄이 새어 나왔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제3장

$1+1+1+1+1+1+1=\infty$

대덕문화원 직원 인터뷰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덕문화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인숙입니다. 2000년 4월 1일에 처음 입사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덕문화원에서 근무했는데요. 처음에는 간사라고 표현했어요. 간사로 시작해서 과장, 팀장, 사무국장까지 밟아온 거죠.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덕문화원이 법동의 안산도서관 내에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 12월에 지금 이 장소로 와서 개관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사해서 회사에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왔다가 그동안 계셨던 국장님들께 많이 배웠죠. 저에게는 평생직장 같은 곳이라 애착이 많아요.

::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하셨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은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1년에 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3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이라는 기록사업이었는데요. 예산도 큰 사업이었고, 저희가 잘 몰랐던 사업을 처음 해본 것이어서 더 설렜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원래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걸 좋아하는데요. 올해 진행한 기록사업이 저에게 그랬어요.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걸 훑어보니 이제 다음 사업을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덕학 시즌 2로 진행한 <대덕마을 두벅두벅>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스터디 그룹을 꾸려서 이야기를 나눠보며 시작을 했어요. 마을기록을 하시는 월간



“저희가 주로 마을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사업을 진행했던 마을에 찾아가면
주민분들이 되게 반겨주시거든요.
그럴 때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동춘당 문화제> 같이 큰 행사나 축제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작은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이
더 살갑게 느껴져요.”

토마토 이용원 대표님, 백남우 문화해설사님,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의 김지영 연구원님, 구석으로부터 문화기획자 서은덕님을 모셨거든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반영해서 올해 3회차 정도 대덕구의 마을을 걸으며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해설사가 일방적으로 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콘셉트여서 더 특별했는데요. 점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사업이 어떤 일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덕문화원에 입사해서 가장 처음 담당했던 사업은 <대덕백일장>이었어요. 4월 1일에 첫 출근을 했는데, 4월 2일이 백일장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4천 명씩 오던 때거든요. 대청담에서 원고지 배부하고 행사품 사서 나르고 끝나고 정산하고 했는데 정말 용어도 잘 모르겠고 정신없고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일을 배워온 덕분에 성장이 빨랐던 것 같긴 해요. 아마 여유로웠으면 그렇게 배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첫 사업이라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춘당 문화제>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무조건 사진을 잘 찍어야 했어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무대 위에 주눅거리며 올라가서 사진 찍는 게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일하시면서 뿌듯한 경험이나 보람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주로 마을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사업을 진행했던 마을에 찾아가면 주민분들이 되게 반겨주시거든요. 그럴 때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동춘당 문화제> 같이 큰 행사나 축제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작은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이 더 살갑게 느껴져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동 주공 3단지에 들어갔던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동네는 제가 자랐던 동네여서 더 포근했었어요. 그리고 청자마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동네에 가면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왔어~”하며 반겨주시는 것들이 뿌듯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뭐 상을 받거나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소소한 감동들이 있어서 계속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일하시면서 가장 힘드시거나 어려우신 점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저희가 보통 4년 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4년에 한 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 관련 정책들과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 바뀌어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희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어차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굳이 매번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일은 조금 많으면 힘들게 했다가도 또 쉬면 되고, 직원들 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가족처럼 지내면서 풀기도 하는데 정권은 저희의 의지와 힘으로는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으로 대청담 수물민들의 구술 채록을 진행했는데요. 내년에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극을 만들 계획이에요. 구술 인터뷰는 영상과 글로 기록이 되긴 하지만 좀 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연극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도심에서 지역리서치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연극 <정동여인숙>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극단과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에도 도전해보려고 하고, 이게 잘 되면 전국에도 알려질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그리고 또 내년에 새롭게 도전해볼 만한 신규사업들이 있다면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순자이고요. 대덕문화원의 살림을 담당하고 있어요. 대덕문화원에는 2008년도에 입사해서 2012년까지 문예회관 위탁 기간 동안 일을 하다가요. 잠깐 위탁 종료가 되어서 쉬었다가 2014년 2월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일반 회사에서 일했었는데요. 문화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다가 소개로 알게 되어서 입사하고 벌써 15년 정도 일하게 됐네요. 제 직급은 부장인데요. 저희 문화원은 크게 대덕문화원 소속 직원과 대덕문예회관 직원으로 나뉘어있어요. 그중에 원장님, 부장인 저와 사무국장님은 책임자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하셨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직이 점차 커지면서 결산과 예산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1년간 보조사업과 자체 예산의 사업비를 결산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관, 인사, 복무, 보수, 문서 등의 규정을 관리하는 일도 하고요. 대덕문화원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보고, 예산관리 현황 등을 보고하는 이사회 개최와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것도 저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무와 보수를 관리하고 대덕문화원의 회원 관리도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어서 늘 숫자와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지역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많았는데요.
예전에 덕암동에 있는 청자마을이나 연륙동 같은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했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마을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행복해하시거나
이렇게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면 뿌듯했죠.

::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사업이 어떤 일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계족산 무제> 단비 운동회가 기억에 남아요. 원래는 계족산에 올라가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동네로 내려와서 진행했거든요. 마을 주민분들이 100여 명 가까이 참여해주셔서 같이 즐길 수 있었고, 승부사도 나오시고 사람들의 원초적 본능을 볼 수 있어서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문화탐방>은 대덕문화원 회원 70여 명과 함께 하는 가을 나들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는 나들이를 꺼려하셨었는데, 올해 탐방을 갈 때는 다들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식사나 간식도 꼼꼼하게 챙겨드렸고 해설사님의 해설도 들었고요. 상반기에는 논산, 하반기에는 단양으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11월 초에 대덕문화원 수강생들의 작품을 가지고 펼치는 <작품발표회>가 있는데요. 이때 제가 1부 사회를 보게 되어서 기억에 남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무대에 올라갈 기회도 얻으시고 한층 더 성장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제9대 임원선거에 따라 총회를 준비하는데요. 늘 총회 때마다 회원분들이 항상 잘했다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해요.

:: 일하시면서 뿌듯한 경험이나 보람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제가 사업도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사업이 문화학교 가기, 문화 탐방, 백일장, 계족산 무제, 동춘당 문화제 등과 같은 사업이었는데요. 2019년부터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이 조금씩 나뉘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예산 일을 담당하면서 제가 다 했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하는데 수월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많았는데요. 예전에 덕암동에 있는 청자마을이나 연축동 같은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했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마을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셔서 행복해하시거나 이렇게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 해주시면 뿌듯했죠.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숫자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결산하고 마무리했을 때 원 단위까지 똑 떨어지게 딱 맞았을 때 통쾌함 같은 것이 있어요.

::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시거나 어려우신 점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지금은 좀 안정이 됐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위탁이 종료되고 했을 때는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흩어지게 되고 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나오게 됐을 때도 문화원 자체가 핍박을 받던 시대여서요. 예산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요. 일하려면 직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저와 사무국장님이 수당을 떼어서 직원 한 명의 월급을 만들어서 함께 일하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애정이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직원이 3명이 전부인 적도 있어서 의견 합의를 보는 일도 수월한 편이었는데요. 지금은 조직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것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래 직원들도 가르치고 해야 하고 서로의 업무 스타일도 맞춰가야 하고요. 조직이 커지는 일은 그만큼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1년을 다 지내면 올해도 무사히 잘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격상 힘든 일은 오래 생각하지 않아서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뭔가 해야지 하고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보통 여행도 즉흥적으로 가는 편이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깊게 생각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문화원 내에서의 일은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는 사업이 많아서 내년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총회 준비나 행정감사가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긴 해요. 그래도 잘 준비해야겠죠.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한성이고요. 현 직급은 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대덕구 대덕문화관에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 건물에서만 일하고 있어요. 꽤 오래됐죠. 저희 건물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요.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계실이 있어요. 1층에는 회덕작은도서관과 사무실, 강의실이 있고요. 2층에는 강의실 2개와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전시실이 조금 큰 곳과 작은 곳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대덕문화관이 전에는 구청에서 사업소로 직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대덕문화원이 위탁을 받아서 2012년까지 하다가 대덕구평생학습센터가 들어왔죠. 그래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대덕구청 공무원으로 있다가 2019년에 다시 대덕문화원이 위탁을 받으면서 다시 또 이 자리에 남게 됐어요.

::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하셨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나 각종 대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기, 통신, 소방, 경비, 승강기 등을 관리하고 공연장, 전시실, 강좌실, 창고 및 각종 시설 운영관리도 합니다. 또 공연장, 전시실의 대관업무와 물품관리, 시설물관리 계약체결 및 관리 업무도 하고요. 시설환경관리와 사회복무요원 및 환경관리요원 관리 업무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데요. 급한 사항이 있으면 좀 일찍 나오기도 하고 늦게 퇴근하기도 해요. 또 주말에도 대관이 있으면 나와서 일해야 하기도 하고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차단기가 없어서 외부인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바람에 수강생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주차차단기 설치를 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일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제가 진행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지하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한 것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던 일이었는데요. 다 12월에 진행한 일이었어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차단기가 없어서 외부인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바람에 수강생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주차차단기 설치를 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게다가 전기 사용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 일하시면서 뿌듯한 경험이나 보람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뿌듯한 일은 제가 하는 업무상 한 해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여기서 14년 가까이 일하고 공간을 관리하면서 화재라든가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몇 해 전에 수도시설이 파열돼서 건물 전체에 많은 누수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미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책임을 지고 혼자 다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요. 그 일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시거나 어려우신 점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사실 저 혼자 건물관리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힘은 들죠. 그렇다고 여건상 인원을 더 채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끔 업무가 과중하게 몰릴 땐는 조금 아쉽고 힘들기도 해요. 특히나 겨울철에 한파가 몰려온다고 하면 1층에 나와서 시설관리 점검도 해야 하고, 어디 동파가 됐나 안 됐나 확인도 일일이 해야 하고요. 또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눈이 오면 눈도 쓸고 청소도 해야 하고, 구석구석 단속해야 하는 곳들이 많아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저희 건물에 있는 승강기가 이제 오래돼서 내년에는 바꿔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승강기 교체 가격이 1~2백만 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5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더욱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해야죠. 그래서 내년에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잘 바꾸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원이고요. 현재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예고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한국음악과를 나와서 대금을 전공했어요. 그러다가 기획자의 꿈을 가지고 대전문화재단에서 계약직으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2017년에 대덕문화원에 와서 지금 6~7년 차가 되었습니다.

::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하셨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올해 주로 큰 단위의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도시문화아카이브> 사업은 대덕구의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하기 위해서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요.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은 지역 생활사 기록가를 8명 양성해서 대청댐 수몰민 24명의 구술 채록을 하는 사업이었어요. 작년부터 저희 문화원이 지역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 방향성을 고민하다 보니 지역문화를 기록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덕학 시즌2>는 대덕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했던 사업이었어요. 문화예술, 이야기책, 향토문화 지역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지역학, 대덕학을 구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지역학이 좀더 구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문화원활동 연간아카이빙> 사업이 있는데요. 대덕문화원의 1년 활동 사업을 취합해서 책자로 펴내는 일이에요. 대덕문화원을 홍보하고 관련 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30주년 발간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호연재 여성문화축제>와 <동춘당 문화제>가 있는데요. 각각 대덕구의 역사인물



2020년도에 대덕문화원이 대상 받았을 때가 생각나요.

제가 입사한지 3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전국에 문화원이 230여 개 정도 되는데

대상을 두 번 받았던 문화원은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저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뿌듯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호연재와 동춘당 송준길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역사 축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사업이 어떤 일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진행했던 사업 중에 <동춘당 문화제>는 3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축제였어요. 대덕구의 대표 되는 역사문화제 중에 하나라 기대감이 컸던 사업인데요. 그동안은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다가 처음으로 직접 맡아서 축제 기획부터 운영까지 혼자서 하려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준비해야 했는데 혼자서 하려다 보니까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결과는 좋았지만 내부적인 운영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남아서 결과와 과정이 약간 감정이 다른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기록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기록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문화원에서 배워가며 운영했었어요. 가장 인상 깊은 건 대덕구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만났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록하기 위해 사람을 자주 만났던 일들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문화원이라는 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진행한 게 기록사업이었거든요. 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같이 만들어가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문화원이라는 기고나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연관 지을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 일하시면서 뿌듯한 경험이나 보람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2020년도에 대덕문화원이 대상 받았을 때가 생각나요. 제가 입사한지 3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전국에 문화원이 230여 개 정도 되는데 대상을 두 번 받았던 문화원은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저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뿌듯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2018년도에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회에 참여해서 저희가 <계족산 무제>로 동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때도 재미 있고 뿌듯했던 경험이었어요. 그 안에서 저도 어떤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낄 때는 사람들이 제 이름이 많이 부를 때인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나 사무실 내부에서 “장원씨가 없으면 안 되겠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뿌듯하죠. 그리고 저희가 25년사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처음 대덕문화원이 설립됐을 때부터의 이야기를 모으고 했는데, 그 25년이라는 시

간 안에 제가 함께한 6~7년의 시간도 함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시거나 어려우신 점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사실 저희 문화원이 한 사람당 8~9개씩의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어서 온전히 한 사업을 잘 해 낼 수 없다는 시간상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 스스로 아쉬움이 남기도 해요. 축제 기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축제를 기획한다거나 기록 전공이 아닌데 기록 사업을 이끌어 간다거나 홈페이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없는데 홈페이지 제작을 맡아서 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대리라는 직책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어요. 막 내었을 때가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19년에 처음 대리를 달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제 일뿐만 아니라 아래 직원들도 신경써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배우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 사실 시간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쉽지는 않아요.

::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점점 기록사업으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업무분장에서 많이 축소를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기록사업은 일이 많고 과정이 길어서요. 내년에는 어떤 걸 기록해볼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했던 사업들의 연장선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고민들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못했던 운동도 하고 싶고, 워라밸을 지키며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진주라고 합니다. 원래 대학 때 전공은 화학공학과였는데요. 문화예술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이쪽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조금 늦은 나이에 입사했어요. 2020년 6월에 처음 입사해서 지금은 3년 차고요. 주로 문화예술 교육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입사 전에는 출판사에서 2년 정도 일했습니다. 보통 문화 관련 시설이나 기관들은 대부분 전공이나 경력을 요구하는데, 문화원은 제한이 없어서 저도 지원이 가능했어요. 다행히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하셨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올해 6개의 사업을 맡았는데요. 먼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4월에서 9월까지 용호동 어르신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하셔서 농사 짓는 브이로그, 요리하는 브이로그, 마을 노래자랑 같은 마을행사들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으로 마을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나만의 부캐릭터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한남대 학생들과 일반 주민들로 구분해서 모집했어요. 6월~8월 기간 동안 총 15회차로 진행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아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은 100가지 중에 3가지를 선택해서 살고 있다면 나머지 97가지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은 대덕구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했는데요. 13명 정도 인원이 참여하셨고 서로에 대해 깊이



어떤 사업을 하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참여자가 해주시는 말 한마디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후로 색연필을 처음 잡아봤다 하시면서
처음에는 못한다 하시다가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거나
너무 오랜만에 와서 좋았다고 하실 때 큰 보람을 느껴요.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또 예술가의 가치관이나 생각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대덕구의 여러 공간을 체험하면서 교육을 진행해서 매년 색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문화학교>는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27개의 강좌 운영 지원을 하고 11월에는 작품발표회도 개최했어요. <문화원 직원 역량강화>는 주로 전국의 잘하고 있는 문화원을 견학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울산남구문화원에 다녀왔고, 12월 27~28일에는 부산에 갈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전국역사문화탐방>은 문화원의 이사, 회원을 대상으로 해설과 함께 전국의 명소와 문화재를 보고 관람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문화원에는 회원이 290명 정도 계십니다. 함께 밥도 먹고 버스에서 수도도 떨면서 회원들끼리도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사업이 어떤 일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때 용호동 마을회관 안에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한 어르신 이 자주 안 오셔서 다른 어르신들과 강사님들과 함께 그분 댁에 찾아가간 적이 있어요. 작은 마을이라 낯선 차가 들어가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곤 하는데, 그날은 주민분들과 함께 들어가서 잘 통과했었어요. 집을 방문할 정도로 주민분들과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또 올해 진행했던 <계족산 무제>는 동춘당역사공원에서 운동회 형식으로 진행했는데요, 하도 뛰어 다녀서 발톱이 새까맣게 죽었는데, 그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나가던 학생들이랑 수도도 떨고 게임 소품인 물풍선도 같이 만들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꼈던 과정들이 기억에 남아요. <동춘당 문화제>도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가족 단위로도 오고, 강아지도 데리고 나오고,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만 봐도 참 좋았어요. 또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으로 진행한 ‘이야기 덕덕꾼’프로그램 중에 회덕향교에서 진행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교육 주강사였던 남명옥 배우께서 여유롭게 향교를 돌아보며 바람 소리, 새소리를 느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도 앞으로 바쁘게 일을 하더라도 여유를 갖고 감각을 늘 열어놓고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 일하시면서 뿌듯한 경험이나 보람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어떤 사업을 하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참여자가 해주시는 말 한마디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후로 색연필을 처음 잡아봤다 하시면서 처음에는 못한다 하시다가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거나 너무 오랜만에 와서 좋았다고 하실 때 큰 보람을 느껴요. 일상적으로 즐기지 못하셨던 문화예술을 문화원을 통해 접하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용호동에서 문화원으로 다 같이 공연을 보러 오셨는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시면 보람 있고 뿌듯하죠. 저희가 준비한 축제를 즐기는 가족들을 볼 때면 그분들에게 하나의 추억거리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아요.

:: 일하시면서 가장 힘드시거나 어려우신 점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참여자의 어두운 표정을 보거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요. 저희는 각자 담당 사업이 있지만 서로 협력도 자주 하는데요. 다 같이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혼자 담당해야 할 때 결정을 못 하겠다거나 감당을 못해서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생길 때도 있어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남는 것 같아요. 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우선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사업>과 <문화강좌>는 계속 제가 맡아서 하고요. 제가 맡았던 사업 중에 일부는 박한결 선생님께 가게 되어서 도와드릴 것 같아요. 장원 대리님이 하시는 기록사업도 도와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일을 도와드릴 때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더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승준이고요. 저는 2021년 7월에 입사해서 대덕문화원에 들어온 지 2년 차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서예디자인학과를 전공했고, 졸업하기 전에 4학년 2학기에 취업해서 이곳이 첫 직장이에요. 저희는 보통 프리랜서 캘리그래퍼로 활동하거나 박물관 계통으로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가 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워서 적응하는 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하셨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올해 제가 맡은 사업은 10가지였는데요. 먼저 <정월대보름행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신에 한해의 안녕과 평안을 소망하는 달 자개 그림톡을 제작하고, 제가 캘리그래피를 직접 써드려서 액자를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민속보존마을행사>는 각 마을별로 장승제와 산신제를 지내는 것인데요. 장승제 1개 마을, 산신제 4개 마을이 진행되었어요. 마을분들끼리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각자 마을에서 지내고 있는 사업이에요. <대덕백일장>은 원래 대청호에서 시작해서 동춘당 공원에서 진행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변경되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계족산 무제>는 원래 계족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내던 것인데요. 올해는 6월 단오 때 동춘당공원에서 운동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 행사 이후에 정말 비가 내렸어요. <대덕시낭송대회>는 대덕시낭송협회와 함께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초등부와 일반부로 나뉘어서 진행됐어요. 일반부 동상 이상



저는 전시기획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술가들이랑 소통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침 내년 업무분장에서 그 사업이 제게 오게 되어서
내년에는 전시기획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수상자는 대덕시낭송협회에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대덕문학회>는 대덕문학회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해서 매년 문학집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와 문학회 시상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대전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해피 클래식> 사업은 대덕구민들에게 고품격 클래식 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1회차는 유치원생들에게, 2회차는 회덕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공연을 했어요. <대전시립무용단 공연>은 네이버폼으로 홍보를 해서 대덕구민들에게 문화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연 사업이고요. <목상동 들말두레소리>는 대덕구의 전통민속놀이인데요. 들말두레소리보존회를 주축으로 주민들 60여 명이 함께 매년 정기 시연을 하고 있어요. <김호연재 여성회화대회>는 올해 3회차로 진행한 사업인데요. 대덕구의 여성인문인 김호연재를 콘텐츠화해서 여성회화대회를 개최했어요. 여성 서화인들을 양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지난 1회, 2회 때는 코로나 때문에 공모전으로 진행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하게 됐어요.

::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사업이 어떤 일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족산 무제>가 코로나가 살짝 풀리면서 처음 대면 행사로 진행했던 사업이었는데요.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제일 힘들었던 사업이었어요. 운동회 계획도 세워보고 하는 일들이 다 처음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로 <김호연재 여성회화대회>는 제가 입사해서 처음 맡은 사업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는데, 올해는 계획대로 잘 진행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장원 대리님을 도와 함께 진행했던 <동춘당 문화제> 사업도 만감이 교차한 사업이었어요. 이 안에도 회화대회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함께 도와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달 안에 모든 걸 준비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신경 써야 했는데 많이 못 챙긴 거 같아서, 잘 끝나긴 했지만 스스로 잘한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7월 1일에 입사 1년차가 되었는데요. 첫 직장을 1년 동안 다녔다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그동안 일하시면서 뿌듯한 경험이나 보람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크게 했다고보다는 대부분 협회나 문학회가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계족산 무제> 때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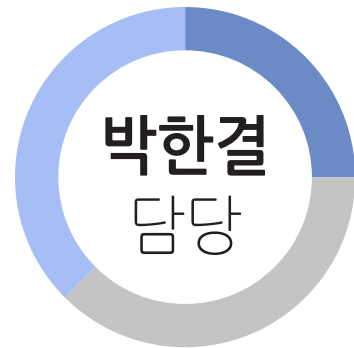
회 게임 같은 걸 준비하면서 서로 피드백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재미있기도 했고요. 또 <정월대보름행사> 때 제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문장과 문구를 받아서 직접 글씨를 써드려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시거나 어려우신 점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서예를 하면서는 주어진 것만 했는데요. 여기 대덕문화원에 와서는 생각해서 기획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동안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술 쪽은 시키는 걸 한다면보다는 계속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해야 하잖아요. 이런 기획을 하는 부분이 아직도 제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전시기획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술가들이랑 소통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침 내년 업무분장에서 그 사업이 제게 오게 되어서 내년에는 전시기획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싶던 사업이 마침 딱 저에게 오게 되어서 더 재미있게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한결입니다. 대학 때는 한국음악을 전공했는데요. 졸업 후에는 짧게 여러 군데에서 일을 했어요. 개인 레슨도 하다가 중학교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 수학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교육청과 문화재단, 연극협동조합에서는 행정 업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연구원에서 조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2022년 4월에 대덕문화원에 입사해서 현재 막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하셨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올해 제가 진행했던 사업들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대덕문스팟, 지역문화재 스토리텔링이에요. 먼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한국문화 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청년 국악인 5팀과 함께 '청춘국악시리즈 판&판'이라는 이름으로 총 5회 공연을 진행했구요. 대청호를 주제로 8명의 작가들이 모여 '대청어람'이라는 기획전시를 열기도 했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대전문화재단 공모사업이고, 공연단체와 협력해 올해 공연을 총 6회 진행했어요. 그리고 <대덕문스팟> 사업은 '달빛부르썬'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공연사업인데요. 고전 영화와 라이브 연주의 콜라보인 라이브더빙 번사극과 민요와 라이브 연주가 함께하는 입체낭독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기획했던 공연이었어요. <지역문화재 스토리텔링>은 스토리가 있는 문화재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해 '술시에 떠나는 깨비 야행'이라는 이름으로 대덕구 읍내동을 걷는 탐방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그리고 매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



행사와 문화학교 강좌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SNS와 문화원 로비를 통해서 홍보하는 <월별홍보영상> 제작 업무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사업이 어떤 일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4월 11일에 첫 입사 후 열흘 만에 갔던 울산 워크숍이 기억에 남아요. 문화원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5월 3일에는 점심시간에 회사 뒤뜰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이것도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주로 경직된 조직에서 일하다가 친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9월 15일에는 ‘용호일기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따뜻하고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9월 28일과 29일에 진행했던 ‘술시에 떠나는 깨비 야행’프로그램이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맡은 첫 사업이었어요. 사업의 전체적인 과정도 배울 수 있었고 참여자들도 기억에 남는 사업이었어요. 사실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의 일이 비슷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용호일기’나 ‘술시에 떠나는 깨비 야행’같은 사업들이 문화재단에서는 실행하기 어렵지만, 문화원에서는 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 일하시면서 뿌듯한 경험이나 보람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참여자들의 호응이 있을 때 뿌듯함을 느껴요. 문화재 탐방사업인 <지역문화재 스토리텔링> 사업을 저녁에 함께 걷는 야행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구성해서 저녁 7시부터 9시를 뜻하는 ‘술시’를 붙여 ‘술시에 떠나는 깨비 야행’으로 기획했어요. 읍내동 주변 문화재 야행과 도깨비탈 꾸미기 체험, 다과 체험, 문구 스티커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커플과 가족들이 자신이 꾸민 도깨비 탈을 쓴 채 청사초롱을 들고 함께 거닐었고, 그 모습을 스냅 작가의 사진으로 담아 공유해드렸어요. 사전에 참여 신청을 받아서 이틀간 진행했는데, 참여하셨던 분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문화원 SNS에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특히 읍내동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오신 분들도 대덕구 읍내동과 대덕문화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열심히 준비한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뜨겁게 반응해주시니 뿌듯하고 보람 있었어요.

:: 일하시면서 가장 힘드시거나 어려우신 점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중에 ‘청춘국악시리즈 판&판’기획공연이 만감이 교차했던 사업이었어요. 수준 높은 공연팀과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공연이어서 제가 국악을 전공한 만큼 더 잘 해내고 싶은 사업이었는데요. ‘술시에 떠나는 깨비 야행’과 일주일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일정인 데다가 공연장 상주단체 교류공연도 비슷한 시기에 겹쳐서 일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업 일정이 몰려 있을 땐 미리 준비를 해놓았어야 하는데 제가 경험이 많이 부족했어요. 다행히 우리 문화원이 함께 돕고 같이 해결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덕분에 도움도 많이 받고 행사도 잘 마치고 끝났는데요. 제가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공연팀들도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것 같고, 홍보도 더 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덕분에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어요.

::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내년에는 입사 1년 차 때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요. 입사하자마자 진행 중이던 사업들을 도중에 맡아서 일하다 보니 큰 사업들을 맡는 것이 아직은 이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원에서 하는 기본적인 사업부터 배워나가야겠다고 생각했구요. 또 제가 지난달에 결혼을 했는데 문화원 일과 결혼생활을 균형 있게 잘 꾸려나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제4장

한 장의 사진과 수많은 추억

대덕문화원 활동 사진



2022년 8760시간동안

대덕문화원은 대덕구의 다양한 곳에서

대덕구의 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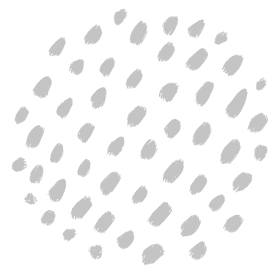
대덕문화원은 대덕구만의 특색이 담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왔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청년들의 뜨거운 박수와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대덕문화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주었습니다.





많은 이야기와 다양한 사람들이
대덕문화원과 함께 했던 2022년의 추억이
오래오래 간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배우며 전통을 지키는,
 예술을 사랑하고 새로움을 창조하며
 마을과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다움의 가치임을,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덕문화원입니다.





제5장

언론이 바라본 대덕문화원

대덕문화원 언론보도 모음

대덕구, 대덕도시역사문화기록 아카이브사업 본격 추진

김선영 | 입력 2022.07.16 10:14 | 댓글 0



대전시 최초 관련 조례 제정, 올해 예산 3000만원 확보



▲대덕구청 전경.

대전 대덕구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2022년부터 '대덕도시역사문화기록 아카이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대덕문화원 보조사업인 '대덕도시역사문화기록자 양성아카데미'를 통해 신탄진 지역의 사건, 인물, 장소, 유물, 문헌 등의 조사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대덕구 관내 각 동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대덕구의 인물, 장소 등 유무형의 도시기록 자료 조사 및 수집을 통해 마을의 정체성과 지역 문화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최초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도 관련 사업예산 3000만 원을 확보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모든 소중한 역사 문화 자산이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돼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이로써 역사문화도시로서 대덕구의 위상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영 ptking2@korea.kr

기자의 다른기사 >



대덕문화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선정

A 이준섭 기자 | © 입력 2022.02.23 14:51 | © 수정 2022.02.23 23:26 | 댓글 0



프로젝트 영상촬영, 대덕문화원 제공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대덕문화회관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약 4000만 원을 확보했다.

대덕문화회관은 공연, 전시분야 기획 프로그램에 선정돼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연분야에서는 대전 대덕구민들의 높은 국악 선호도에 맞춘 청춘 국악 시리즈 '판&판'이 선정돼 청년 국악단체와 5회에 걸쳐 무대를 선보인다.

전시분야에선 대청댐을 8명의 작가가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는 '대청어람(大清御覽)-내륙의 다도해 아름다운 대청호'가 추진된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 | 문화 일반

대덕문화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

예산 2300만 원 확보, 대덕구 용호동 주민들 대상 운영 예정

승인 2022-03-02 16:26



오희룡 기자



대덕문화원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진=대덕문화원 제공

대덕문화원은 용호동의 마을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용호일기'가 2월 28일 대전문화재단이 주관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2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덕문화원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대덕구 용호동 주민들이 마을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재구성한 용호동만의 문화예술 마을 영상기록물 '용호일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대덕문화원은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고손내'를 통해 용호동 주민들과 함께 그림책 자서전을 제작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의 삶을 조명했다면 이번해에는 마을의 이슈와 일상을 주민들의 시선에서 고민하고 돌아보기 위해 기획했다.

대덕문화원은 오는 4월에 '용호일기'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ly@

대덕의 마을과 사람 그리고 문화재

전면영 기자 | 승인 2022년 03월 09일 22시 12분 | 차분재재림 2022년 03월 10일 목요일 | 지면 15면 | 지면보기

f t y

대덕문화원 도서 발간... 7개 마을 10선의 문화재 담아



[충청투데이 전면영 기자] 대덕문화원은 대전 대덕구 지역 문화재와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대덕의 마을과 사람 그리고 문화재' 도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대덕의 마을과 사람 그리고 문화재'는 대덕구 지역 문화재 10선을 중심으로 문화재를 품고 사는 마을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스토리북이다.

책에는 비래동-송촌동-중리동-법동-음내동-장동-미호동 등 7개 마을에 대한 마을이야기, 문화재, 역사적 사실 등이 기록됐다.

옥류각, 동촌당, 정려각(고종류씨, 이시적공, 은진송씨), 송예당, 쌍정당, 어사종원모영세불암비, 회덕향교, 돌장승(법동, 뒷골, 당아래), 계족산성, 휘백정으로 총 10선의 문화재 이야기가 수록됐다.

특히 각 문화재별 소개 페이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대덕스토리북 문화로' 영상을 유튜브로도 감상할 수 있다.

이종철 대덕문화원장은 "다시 한 번 지역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도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저편에서 문화재를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삶과 문화재의 흔적을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전면영 기자 myjeon@cctoday.co.kr

문화 > 문화/문학

대덕백일장 내달 2~20일 온라인 작품 공모

A. 이준섭 기자 | 입력 2022.04.28 15:53 | 수정 2022.04.28 15:55 | 댓글 0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대덕문화원은 온라인 공모 방식으로 제27회 대덕백일장을 개최한다.

대전시, 대덕구가 주최하고 대덕문화원이 주관하는 대덕백일장은 학생부, 초등(1~3학년) 저학년부, 초등(4~6학년)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및 일반부로 실시된다.

공모 부문은 운문(시), 산문 등이며 1명 당 1개 작품만 출품 가능하다. 글제는 신호등, 라면, 꽃다발이다. 각 부문별로 대상 5명(대전시교육감상 및 대덕구청장상·상품권 10만 원), 금상 10명(대전동·서부교육감상, 한남대학교총장상, 대덕구청장상·상품권 5만 원), 은상 10명(대전동·서부교육감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대덕구청장상·상품권 3만 원), 동상 50명(대전문화원연합회장상), 장려 100명(대덕문화원장상)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대덕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종철 원장은 "대덕백일장으로 건전한 글쓰기 문화 형성과 참여자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j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색어 입력해주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PDF

뉴스 대전·세종 충남·충북 기획 오피니언 사람들 스포츠

2023-01-04 10:14 (화)

대덕문화원, '제3회 김호연재 여성회호대회' 진행

문화 > 전체 | 입력 2022.05.03 15:15 | 16면

이태민 기자 e.taem@daejonilbo.com

구독

대덕문화원이 주관하는 김호연재 여성회호대회가 오는 7월 16일 열린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회호대회는 대덕문화원 야외마당에서 1·2부로 나눠 진행하며, 만 18세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한글, 한문, 전각, 문인화·사군자, 캘리그래피로 1인 2개 부문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상부터 입선까지 총 상금 85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참여자가 지난 대회 대비 약 39% 정도 상승해 일상 회복 분위기를 실감케 한다는 평가다.

대덕문화원 관계자는 "대덕구의 여성 인문 김호연재를 전국적으로 홍보해 그의 문학·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여성 서예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제3회 김호연재 여성회호대회 대회 명 제

구분	한글	한문
한글, 한문, 전각, 캘리그래피	-화- 내가 그대를 기다리는 자리를 열어 그대가 날 찾는 꿈을 받도록 구름은 앞 내에 그림자 저물었고 바람은 작은 고향에 불어와 왔도다. (53자)	-화- 開我侯君席 承君訪我情 雲影前溪晚 風來小洞清
	-사물이 공무하는 곳에 보내어- 잠만 떠난 것을 가지고 일할까라는 오직 내 마음이 갈리는 도다. 난간에 의지하여 돌아올 길을 바라보니 여스를 산 잊어 저물었도다. (53자)	-送思經書所- 暫離何足言 猶使我心苦 倚欄望歸路 依稀山色暮
	-제가 중- 배오라지 신산의 맑고 고요한 도를 얻어 불래산 긴 긴 날의 뜬 구름을 희롱하는구나. (33자)	-釋家中- 聯得仙島清靜道 蓮葉長日弄浮雲
문인화·사군자	-화 중- 바람은 작은 고향에 불어와 왔도다. (14자)	-風中- 雲影前溪晚 風來小洞清

※ 한글, 한문, 캘리그래피 부문은 (한글, 한문) 6가지 중 영재 택1.
※ 전각 지장명재 선택 후 글자 / 글자으로 새기며, 원문 택문 후 동원지명재 재출.
※ 1인 2문분 분배, 글자를 빼먹고 쓰거나 분만 임의대로 작성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 함.

사진=대덕문화원 제공

대덕문화회관, 꿈꾸미-새로운 나를 꿈꿔보는 사람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A 최종환 기자 · 2022.05.13 13:33

🔍 📖 📷 🗨️ 가 가

2022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새로운 나를 꿈꿔보는 사람들
꿈꾸미 나만의 부캐 만들기
with drawing

- **교육일시** : 2022. 6.28.(화) ~ 8.16.(수) / 15회차 운영 ※전시회상3회차
- 1기 - 매주 화, 수 13:30~15:30
- 2기 - 매주 화, 수 16:00~18:00
- **교육장소** : 대덕문화회관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40
- **모집대상** : 대덕구민
- **모집인원** : 40명(기수별 20명) ※선착순 마감
- **참가비** : 무료
- **접수기간** : 2022. 5. 13.(금) ~ 6. 10.(금)
- **신청방법** : 전화접수 Tel. 042-627-7517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덕문화회관

대덕문화회관은 지난 1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공모사업 '2022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꿈꾸미-새로운 나를 꿈꿔보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 / 대덕문화회관 제공

대덕문화회관은 지난 1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공모사업 '2022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꿈꾸미-새로운 나를 꿈꿔보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꿈꾸미'는 현실을 떠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본인의 부캐릭터를 구상하고, 가벼운 드로잉 및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창작해보는 프로그램이다.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술 활동을 하면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예술 활동의 즐거움을 맛보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 2회씩 총 15회 차 진행되며, 오는 9월 3일부터 성과발표를 위한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4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이고, 참여 신청은 대덕문화회관 전화 접수로 가능하다.

한편,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문예회관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단오맞이 '계족산 무제-단비 운동회' 동춘당 공원 일대에서 개최

📷 정태경 기자 · 2022.06.01 09:30 · 5댓글

🔍 📖 📷 🗨️ 가



대전 대덕문화원은 오는 3일 오후 4시 동춘당 역사공원 일원에서 단오를 맞이하여 지역과 주민들의 평안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계족산무제-단비운동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계족산무제는 날이 가물어 비가 내리기를 바랬던 기우제 행사로, 코로나19 이전에는 계족산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었던 지역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단합하면서 공동체 문화를 회복시켜주는 장을 마련하고자 장소를 동춘당역사공원으로 옮겨 '단비운동회'로 개최된다.

1부는 마당극패우금치와 대덕구풍물단이 함께 펼치는 '계족산무제' 마니럼 공연이 진행되고, 2부는 대덕향토문화연구회가 진행하는 가원고사, 3부는 대덕구풍물단이 계족산무제의 장면적 요소와 소재를 담은 게임을 경쟁과 화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다함께 하는 나누는 지역문화분위기 조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색다른 방향을 모색 해 나가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이종철 대덕문화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소통하기 힘들었는데, 계족산무제-단비운동회를 통해 대덕구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면서 지역문화가 흥겹게 다시 일어나는 분위기가 메이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 > 지역 > 대전 충청

대덕문화원, 대덕 문스밋 '달빛부르썬' 공연

✎ 신지영 기자 sunab-46@hotmail.net | ⓒ 승인 2022.07.01 16:55

가 가 ☎ f t



대덕문화원 대덕 문스밋 '달빛부르썬' 공연 포스터. 차은·대덕문화원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신지영 기자] 대전 대덕문화원은 오는 8일 공연을 시작으로 29일, 9월 2일, 총 3회차 대덕구 지역 명소에서 대덕 문스밋 '달빛부르썬' 공연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대덕 문스밋 '달빛부르썬'은 달이 뜨는 문화가 있는 날 주간 저녁, 대덕구의 명소에서 공연을 개최해 대덕구 만들에게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연으로 대덕구와 대덕문화원이 주최 주관한다.

8일과 29일, 오정동 선교사촌에서 열리는 1·2회차 프로그램은 라이브드라마 연극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와 '언니는 말괄량이'로 고전 영화, 라이브 음악, 연극을 콜라보하여 선교사촌의 고즈넉하고 정겨운 풍경에 연극배우의 목소리 연기와 아코디언의 감성 짙은 연주가 함께해 관객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3회차 프로그램은 입체낭독극 '걸러, 빗살이 있는 것'으로, 나만의 고유한 빗살을 알아가고 다른 아름다운 색을 찾게 되는 과정을 민요와 라이브 연주, 미술 소품과 함께 다채롭게 구성해 9월 2일, 단정이 아름다운 대전광역시 유영문화재 2호 회덕 쌍정당에서 진행된다.

HOME > 로컬+ > 대전충청

대덕문화원, 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선정

✎ 정태경 기자 | ⓒ 승인 2022.07.09 09:10 | ⓒ 댓글 0

☎ ☎ ☎ ☎



대덕문화원 전경

대덕문화원이 대전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모한 '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에 6일 최종 선정되어 올해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단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기획·운영하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모델(역할)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 사업에는 전국 53개 지역 63개 단체가 신청했으며 대덕구 대덕문화원을 포함해 8개 지역 8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단체 중 문화원은 대덕문화원이 유일하다.

총 3년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덕구와 대덕문화원은 2024년까지 대덕구형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위킹그룹 운영 △지역자원 실태 조사 및 분석 △대덕구 주민참여형 문화예술교육 조사실험 운영 △결과공유회 개최를 진행할 예정이며, 나무시어터 사회적협동조합, 공간 구석으로부터, 마을기록연구소 그리고 등이 협력단체로 함께한다. 추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정,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 마련 등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



대전 대덕구, 제25회 동춘당문화제 개최

등록 2022.09.20 11:16:45



[대전=뉴스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오는 24일 동춘당 역사공원 일원서 '제25회 동춘당문화제'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덕문화원 주관으로 조선 후기 기호학파의 거두인 동춘당(同春堂) 송준길(1606~1672년) 선생을 조명하고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선생을 기리는 전통유교식 송모제례를 시작으로 전국 취호대회, 전통문화 체험과 조선시대 역할극을 재연한 동춘장터와 문정공시호봉송행렬, 선생의 일대기를 해설과 창작 마당극 형식으로 구성한 '동춘당 히스토리텔링 마당극'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이번 행사의 볼거리인 문정공시호봉송행렬은 200여명의 행렬단과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직접 참여해, 조선 숙종때 '文正'이란 시호 교지를 하사받고 내려오는 행렬의 모습을 재현한다.

최충규 구청장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선비의 고장 대덕에서 과거와의 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행사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홈 > 문화스포츠 > 단체기관소식 > 대전

대덕문화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청춘국악시리즈 판&판' 공연 선사 예정

차 이용환 기자 | © 입력 2022.09.23 23:55



대덕문화원(원장 이종철)이 운영하는 대덕문화회관은 오는 10월과 11월 대덕문화회관에서 전국의 청년 국악인들이 모여 국악이 가진 멋과 매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청춘국악시리즈 판&판'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청춘국악시리즈 판&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대덕문화원 대덕문화회관이 주관하는 사업이며, 이번 공연은 총 5회로 오는 10월 5일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6일~10월 7일~11월 10일~11월 11일 열리는 가운데, 10월 공연은 대덕문화회관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11월에는 대덕문화회관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오는 10월 5일 오후 7시 30분 판&판의 시작을 알리는 밴드 '경지'는 '경지에 이른다'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이름으로 역사에 기반을 둔 곡을 창작하는 퓨전국악밴드이며, 싱어송라이터 겸 보컬 베이스 기타 드럼 피라건반 레퍼 등 다양한 장르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고, 호소력 짙은 장법과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개성 있는 사운드로 주목받고 있다.

대덕문화회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한국을 넘어 세계를 누비는 청년 국악인 시리즈 공연으로 대덕구 내 관심과 호응도가 높은 국악 공연을 색다르게 개최함으로써 대덕 문화예술을 이끄는 문화회관(문화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주민들과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연은 전석 무료로 운영되고, 온라인 링크를 통해 사전 관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대덕문화원, 지역문화재 스토리텔링 '술시에 떠나는 깨비 야행' 개최

최태경 기자 | 승인 2022.09.24 12:22 | 0 댓글



대덕문화원은 대덕구 읍내동 소재 문화재 3곳을 탐방하는 지역문화재 스토리텔링 '술시에 떠나는 깨비 야행(술깨야)'을 오는 28일~29일 19:00, 이틀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문화재 스토리텔링 사업은 대덕구 문화재 탐방 사업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대덕구 지역 문화재의 역사적 사실과 마을,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대덕의 마을과 사람 그리고 문화재' 도서를 발간했으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다시 현장 탐방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술시'는 19시부터 21시를 뜻하는 12간지 시간으로, 19시에 대덕문화원에서 출발해서 ▷회덕현감 공덕비, ▷어사 홍원도 영세불망비 및 비각을 지나 ▷회덕향교에서 21시 30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무료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도깨비탈 만들기 △정사초롱 들고 깨비 야행 △향교에서 놀깨비 먹깨비 타임 △문화재 곳곳에 숨어있는 퍼즐찾기 미션을 진행한다. 특히 전체미션으로 준비한 '깨비 퍼즐 미션'은 참여자들이 문화재 3곳을 거닐며 찾은 스티커를 조합해 문화재와 관련된 문구를 만들어보는 코너로, 문구를 완성한 참여자에게는 돌도장(전각)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종철 대덕문화원장은 "단순한 탐방 프로그램이 아닌 무료체험과 야행과 어울리는 소품 등 다양한 요소를 준비한 만큼, 참여자들이 대덕구 문화재를 거닐며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는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온라인 링크를 통해 사전 관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jeong3975@shinailbo.co.kr

대덕문화원, 제25회 목상동 들말두레소리(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3호) 정기 시연 진행

A 이종환 기자 | 승인 2022.10.19 23:55



대덕문화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 대덕구 읍내동 읍내공원에서 제25회 목상동 들말두레소리(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3호) 정기 시연을 진행했다. / 대덕문화원 제공

대덕문화원(원장 이종철)은 지난 16일 오후 2시 대덕구 읍내동 읍내공원에서 제25회 목상동 들말두레소리(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3호) 정기 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들말두레소리는 대덕구 목상동 일원에서 전래 되어 오던 논농사와 관련된 소리로 현재 들말두레소리보존회에 의해 전승되고 있으며, 들말두레소리는 보유자인 故 고석근 선생이 별세 후 목상동들말두레 소리 이수자 문병주 선생이 두레소리의 맥을 이어오고, 올해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3호인 들말두레소리 보유자로 지정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이종철 원장은 "들말두레소리 보유자로 문병주 선생이 지정되어 들말두레소리가 앞으로 두레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지역 전통민속놀이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 하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들말두레소리는 지난 1996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02년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됐다.

대덕문화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전시 '대청어람'

이미션 기자 | 입력 2022.11.18 12:34 댓글 0



[이미션 기자] 대덕문화회관(대덕문화원)은 '내륙의 다도해, 아름다운 대청호'를 주제로 지역 문화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방방곡곡 문화공감 '대청어람(大清御覽)'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같은달 29일까지 대덕문화회관 3층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시에는 노동식, 박정용, 임수빈, 정용민, 정지홍, 조동진, 최정훈, 한수희 작가가 참여하고 큐레이터 안현준, 평론에 허나영 작가가 함께했다.

8명의 작가가 각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경험한 대청호를 한국화, 서양화,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표현한다.

대덕문화회관 관계자는 "대덕구가 가진 지역적 특징을 바탕으로 문화회관 전시 공간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덕문화원과 문화회관이 일상적인 문화향유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대청호를 재조명한 다양한 작품 관람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적 공감대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청어람(大清御覽)-내륙의 다도해, 아름다운 대청호'는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전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덕문화원으로 하면 된다.

대덕문화원, 'Talking Memories _ 사라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 개최

A 이미션 기자 | 입력 2022.12.09 17:55



대덕문화원 2층 특별전시장
관람 문의 042-627-7017
월요일 10:00-17:00, 일 휴관

2022 12.16. — 03.31. 2023

대덕문화원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청댐 수몰민 24명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전시회 'Talking Memories _ 사라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개최한다. / 대덕문화원 제공

대덕문화원(원장 이종철)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청댐 수몰민 24명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전시회 'Talking Memories _ 사라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대덕구(구청장 최충규)와 대덕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대청댐은 1975년부터 1980년까지 대덕구 미호동에서 청주시 문익면 사이에 건설된 다목적댐으로 댐 건설로 인하여 총 4075세대 2만 6000여명의 원주민들이 고향을 잃었고 특히 대덕구 지역에서는 6개의 마을과 농토가 수몰되었고, 대덕문화원은 지난 5월부터 대전지역 8명의 생활사 기록가를 양성했으며,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삶의 변화를 겪게 된 대덕구 지역 수몰민 24명을 구술채록 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댐 건설로 인하여 자신의 터전을 잃었던 대덕구 지역 수몰민 24명의 구술채록을 바탕으로 사라진 것들에 대한 안부를 묻고 기억의 감정들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공간과 그림책으로 해석한 특별한 전시회다.

대덕문화원, 제27회 온라인 대덕백일장 성공적 마무리

A. 劉漢香-기타 : © 합학 2022.06.08 19:22

◀ ● ▶ 가 가

지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응모 작품 수 전년도 작품 수 웃도는 1,300여 편 작품



대덕문화원 / 뉴스티엔티 DB

대덕문화원(원장 이종철)은 지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된 제27회 온라인 대덕백일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덕백일정은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응모 작품 수는 전년도 작품 수를 웃도는 1,300여 편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주요 수상자는 대상 / 초등 저학년 운문 김지민(대봉초 3), 초등 고학년 운문 김단하(왕지중량초 4), 중등부 산문 문정후(상하중학교 2), 고등부 산문 신지성(대인고 3), 일반부 산문 박 웅(경북 포항시), 금상 / 초등 저학년 운문 조건호(하기초 1), 초등 고학년 산문 김민수(버드내초 3), 초등 고학년 운문 김태린(지족초 5), 초등 고학년 김민기(버드내초 6), 중등부 운문 윤희빈(중앙여중 1), 중등부 산문 이규리(문정중 2), 고등부 운문 하이경(건일고 3), 고등부 산문 이예슬(고촌고 3), 일반부 운문 김현경(충북 충주시), 일반부 산문 서지원(경기도 파주시), 은상 / 초등 저학년 운문 방준영(정림초 3), 초등 저학년 산문 이서현(대봉초 3), 초등 고학년 운문 신비하(대동초 5), 초등 고학년 산문 유현서(정림초 5), 중등부 운문 김언우(문정중 3), 중등부 산문 백연재(동대전중 1), 고등부 운문 최지우(안양고 1), 고등부 산문 이수민(고양고 3), 일반부 운문 황정민(경북 경주시), 일반부 산문 박윤서(서울시 동작구) 등이다.

제25회를 기준으로 온라인 대백일장으로 진행된 이번 백일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최하고, 대덕문화원이 주관하며, 교육부, 대전광역시교육청, 한남대학교, 한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가 후원했으며, 1303명의 참여자가 응모하였고,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서도 많이 참여하여 전국 문화 참나무들의 문예활동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덕문화원 관계자는 "대회를 거듭할수록 참여자들의 작품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대덕백일장을 발전시켜 많은 문학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문학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후 제27회 온라인 대덕백일장 입상자 상장과 입상작품집(은상이상 수상자)을 입상자분들에게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덕문화원 홈페이지 및 대덕문화원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428- 최정호 · 이진우 · 이진우 · 이진우

대전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해피클래식' 무료 공연

△ 첨부파일 7개 △ 승인 20220621 08:47 △ 댓글 0

28일 대덕문화원, 29일 중구문화원, 30일 유성문화원, 7월 1일 서구문화원



대전시립고향학당은 원도읍 주민을 위한 무료강연 '우리동네 해피플러스' 연주회를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대덕문화원, 중구문화원, 유성문화원, 동구문화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외로 이민한 국민이 6월과 10월에 모두 8차례만 관련 신청을 할 수 있다. 장기간 코로나 상황으로 연명감인이 어려웠던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플랜시 영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10년째를 접어 우리 지역에 캠프를 개설할 장소도 많이 있어 캠프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특히, 대도시권이 부족한 원도산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캠프를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6월 공연은 28일 대덕문화원을 시작으로, 29일 중구문화원, 30일 유성문화원, 7월 1일 동구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공연은 11시에 시작하며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레나데, 미뉴에트, 왈츠, 가곡, 동요, 행진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클래식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고, 시민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의 현악 앙상블과 함께 클래식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으며 공연 중간마다 전문 해설자가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한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연주회의 다른 문의 사항은 가까운 문화원과, 대전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0월 공연은 10월 25일 대덕문화원을 시작으로, 10월 26일 중구 문화원, 10월 27일 유성문화원, 10월 28일 동구문화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

저작권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덕구, '전국청소년가요제' 참가자 모집

김선영 / 입력 2022.07.24 09:38 / 댓글 0

'2022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과 함께하는 꿈의 무대
오는 8월 14일까지 참가 접수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주최하고 대덕문화원이 주관하는 '2022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전국청소년가요제'가 꿈과 재능을 맘껏 펼칠 전국의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가수의 꿈을 키우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음악적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2022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에서 부대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만13세부터 24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실용음악 보컬부문(댄스 제외)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축제홈페이지(www.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com)를 통해 가능하다.

1차 예선접수는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며, 노래를 부른 동영상과 MR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2차 예선은 9월 3일 현장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 최종 10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경연은 9월 17일 대청공원 뮤직페스티벌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며 총 6팀에게 시상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2022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 문화관광체육과(042-608-6733)로 문의하면 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전국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 > 양광스포츠 > 단체기관소개 > 대전

대덕문화원, 제3회 대한민국 김호연재 여성취향대회 성황리 마무리

▲ 대충한 거지 / 10월 2022 08:29 22:10

영예의 장원(김호연재 상) 손주영 씨 등 19명 수상...장려 강현숙 씨 외 34명 입선 권진운 씨 외 36명 수상



대덕문화원은 지난 27일 전국 각지에 있는 여성 서화인들이 참여한 제3회 대한민국 김호연재 여성취향대회 가 시상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대덕문화원 제공

대덕문화원(원장 이종철)은 지난 27일 전국 각지에 있는 여성 서화인들이 참여한 제3회 대한민국 김호연재 여성취향대회가 시상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김호연재 여성취향대회는 대덕구의 역사 인물인 김호연재의 문학적 가치를 기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여성 서화인들의 서예를 통해 허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고, 올해 김호연재 여성취향대회는 현장취향대회로 진행하여 여성 참가자 109명이 참가했으며, 한글(34점)·한문(27점)·문인화 및 사군자(14점)·캘리그래피(48점)·전각(3점) 총 126점의 참가자들이 작품을 취향하였다.

이번 심사는 짓술 장혜자(한글)·노정 구경희(한문 및 전각)·남리 최영조(문인화 및 사군자)·우전 성인근(캘리그래피) 선생이 참여하여 진행하였고, 영예의 장원(김호연재상/대전광역시장상/상금 300만원)은 손주영(한글서예) 씨·차상(대덕구청장상/상금 100만원)은 김민숙(한문서예) 씨·이은숙(문인화 및 사군자) 씨·차하(대덕문화원장상/ 50만원) 강현정(한글서예) 씨·이다혜(캘리그래피) 씨·이체영(한문서예) 씨·참방(한국서총 대전지회장상/30만원) 김경섭(한글서예) 씨·심미선(캘리그래피) 씨·이운정(한문서예) 씨·이은희(캘리그래피) 씨·진은경(전각) 씨·특선 강민숙 씨 외 등 19명과 장려 강현숙 씨 외 34명 그리고 입선 권진운 씨 외 36명이 수상하였다.

대덕문화원 관계자는 "공모전으로 진행되던 대회를 올해 현장 취향으로 진행하다보니 현장취향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성서화인 발굴 및 서예 발전에 이바지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시회는 지난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대덕문화원 전시실에서 특선이상 수상자 및 초대작가·전년도 장원·운영위원 작품들이 전시된다.

대덕문화원, 대덕 문화발전 선도

대전광역시 / 2022.09.09 09:33

00 가 가

매년 국비 5억원 이상 확보... "여기! 대덕 문화 꽃이 피다"



대덕문화원은 매년 국비 5억원 이상을 확보하며 대덕 문화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대덕문화원(원장 이종철)은 2일 매년 국비 5억원 이상을 확보하며 대덕 문화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재 지난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에 따라 전국에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었으며, 대덕 문화원 역시 1994년 12월 22일 설립되어 28년의 역사와 함께 지역문화와 대덕 문화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94년에 설립된 대덕문화원은 그간 대덕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 저변 확대뿐 아니라 지역문화콘텐츠 발굴과 전통문화 전승보존 등 지역문화를 육성하며, 뚝뚝히 대덕문화원의 길을 걸어온 결과 2010년-2020년 2번에 걸쳐 전국 231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대한민국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전국의 유일한 우수문화원임을 입증한 바 있다.

설립 이래 28년간 대덕문화원은 마을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통해 소통하고 마을문화를 성장시켜 왔으며, 대덕구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년 약 5억원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며 대덕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학을 기반으로 대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지역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대덕 도시문화 아카이브 사업'과 '대덕학 시즌2' 뿐 아니라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함께 전국 5개 문화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을 수행하며 총예산 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지역문화원별로 1억 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2022년대덕문화원 연간활동집

대덕과 만난 8760시간

발행일 2023년 1월 31일

발행처 대덕문화원

(3436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48

발행인 이종철

기 획 대전광역시 대덕문화원

펴낸곳 도서출판 심지

ISBN 978-

* 이 책은 2022년 한 해 동안 대덕문화원의 활동을 기록해 발행했습니다.